

예비선·미사용 케이블 절연마감·식별·말단처리 인계

결론·즉시 확인

이 절차는 **중설·개조 후 미사용 심선과 케이블을 보존·철거 결정하기 전** 필요한 입력값과 보류 사유를 같은 문서 체계로 묶는 방법입니다. 수치나 체크 하나만으로 법정 적합, 설계 승인, 보호기기 확정 또는 재가동 허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 사용자: 단자함·MCC·분전반 개조 후 예비선을 인계하는 시공자
- 도면·설비 TAG·현장 위치를 먼저 고정합니다.
- 측정값에는 단위, 시각, 계측기 ID와 조건을 붙입니다.
- 필수 근거가 없으면 '판정 보류'로 남깁니다.

문제 증상

예비선의 양단 식별, 절연마감과 보존·철거 결정이 서로 달라 후속 작업자가 활선 또는 상대회로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입력·수집값

케이블·심선 ID, 양단 위치, 전압상태, 절연마감, 단자 처리, 도면·라벨, 보존/철거 결정, 책임자 검토

안전·작업허가

전원 격리, LOTO, 검전, 접근통제, 보호구, 감시자와 작업허가 범위를 확인합니다. 활선 측정이나 재가압이 필요한 경우 현장 승인절차를 따릅니다. 이 문서는 자격자·책임기술자·감리·발주처·관할기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측정·판단 절차

1	케이블 양단과 중간 경로를 추적해 동일 개체인지 확인합니다.
2	무전압 확인과 상대회로 영향을 기록합니다.
3	각 심선의 절연마감과 단자 접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4	양단 라벨, 단자대 번호와 As-built 도면을 일치시킵니다.
5	보존·철거·향후 사용 보류 상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6	인계 후에도 접근 가능한 위치와 사진번호를 남깁니다.

적용조건

도면, 제조사 원문, 검사계획서, KEC 적용조항과 프로젝트 승인자료의 판본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른 국가·국제표준 자료는 국내 법정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중단조건

- 양단 식별 또는 무전압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상대회로·유도전압·공통전원 영향이 불명확합니다.
- 노출 도체, 손상 절연, 임시 테이프만으로 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철거·보존 결정의 승인 근거가 없습니다.

조치 후 재검증

라벨·말단처리·도면을 수정한 뒤 양단에서 다시 대조하고 절연 상태와 보존 위치를 재촬영합니다.

인계자료

케이블·심선 ID, 양단 위치, 전압상태, 절연마감, 단자상태, 보존/철거 보류, 사진·도면번호

전문 검토 경계

철거 여부와 향후 사용 가능성은 설비 책임자와 설계·운영 검토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식 근거

- [한국전기설비규정](<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62165&efYd;=0>) — 대한민국, 확인일 2026-07-30. 적용 범위: 국내 전기 설비의 설계·시공·검사에 적용되는 행정규칙. 개별 조항과 경과조치는 원문 확인.
- [IEC 60364-6:2016 Low voltage electrical installations — Verification](<https://webstore.iec.ch/en/publication/24656>) — IEC 국제, 확인일 2026-07-30. 적용 범위: 저압 전기설비의 최초·정기 검증과 결과 보고 요구의 국제 범위.
- [IEC 60364-5-52:2009+AMD1:2024 CSV](<https://webstore.iec.ch/en/publication/103734>) — IEC 국제, 확인일 2026-07-30. 적용 범위: 배선설비의 선정·시공 국제 범위.